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임성훈 나주시장·허남석 곡성군수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3명 공천 배제

새정치, 전국 현역 8명 탈락... 주말부터 공천작업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신청자 가운데 현역 시장·군수·구청장 8명을 포함해 모두 34명을 '부적격자'로 분류,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도당위원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각 시·도당에 2차 공천심사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

1차 심사에서 배제된 현역단체장은 문충

실 서울 동작구청장과 조병돈 이천시장, 고석용 강원 횡성군수,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 송영선 전북 진안군수, 임성훈 나주시장, 허남석 곡성군수 등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5명의 현역 기초단체장을 1차 공천심사에서 걸러냈다.

여기에 현재 재선이 진행중인 김호수 부안군수는 일단 조건부로 2차 공천심사 대상자에 포함됐으나 오는 2일 재판결과에 따

라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전체 현역단체장 탈락자는 9명(호남 6명)으로 늘어난다. 또 전체 공천신청자 470명 중 34명(현역단체장 포함)이 부적격자로 분류돼 1차심사에서 탈락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부적격자 선정에 대해 "개혁공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니 양해해 달라"는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사결과를 두고 일부에서는 애초 서울시당에서 20%의 현역 교체율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개혁공천 의지를 보인 것에 비하면 '물같이 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시·도당별로 2차 공천심사

를 실시해 기초단체장 경선후보를 확정할 계획이어서 현역단체장 가운데 공천 탈락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이번 1차 탈락자는 전과 사실 등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선정한 것"이라며 "현역 단체장에 대한 업무평가는 이번 탈락자 선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참고자료로 시도당에 내려보냈다"고 밝히, 현역단체장의 추가탈락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 당의 개혁공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 발굴에 매진하기로 하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기준을 확정, 시·도당에 하달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

“북 핵실험 중단 설득”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잦은 핵실험 정후와 관련, 핵실험 중단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달 독일 국민방문 시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을 시 주석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안은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가고,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과 신뢰구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와 경제지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정세에서 긴장 고조를 막는 것은 한중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측간 대화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북한의 핵보유 반대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이 서로 일치된 입장에 있다"며 "특히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며 한반도 자주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

23일 오후 경기도 안산 올림픽기념관 침몰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를 위한 임시 합동분향소를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헌화 후 분향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국회의원 5명 '윤장현 지지' 잡음 지속

지역 5개 정치 단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박해자, 장병완, 임내현, 김동철, 강기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윤장현 광주시장 경선 후보를 지지한 데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실천연합 등 광주지역 5개 정치 단체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포함된 5명의 국회의원들은 특정인에 대한 지지 선언으로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24일 광주 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 5명이 특정인과 정치거래를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비서관, 보좌관을 지역 실사팀에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공천권을 획득했다"며 "새정치를 통해 변화와 신뢰회복을 기대했던 지역민의 바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선관위, '당비 대납' 후보측 직원 검찰 고발

도지사 경선 관련 후보측 지역사무소도 압수수색

전남도선관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을 앞두고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인 이낙연 의원 측 지역사무소 직원 4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 측 지역사무

소 직원 4명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해 분산 입금하거나 상호 교차 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6117명의 당비 총 3178만1000원을 대납한 혐의다.

이 의원 측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자신들을 지지하는 당원을 늘리기 위해 당비 대납

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비 대납 사태는 통상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이 '당원 50%, 일반시민 50%'의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지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원이 참여하는 민주당 경선물은 경합을 벌이는 후보들 사이에는 권리당원 모집

이 중요한 변수였다. 옛 민주당에선 한 달 당비로 1000원을 내면 일반당원, 반년 당비 6000원을 내면 권리당원 자격이 주어졌다.

또 도선관위는 이날 전남지사 경선 후보인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 측 지역사무소 직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1310명의 당비 786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문제가 된 이낙연·주승용 의원 측 지역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정치 차기 원내대표 경선 내달 8일 실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달 8일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상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회의 열어 확정된 선거일 등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한 일정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8일부터 이를 동안 진행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30일 후보자 등록 공고 직후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7일까지다.

이상민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가 지난해

에 비해 일주일 정도 앞당겨진 것과 관련, "신당 창당 때 만든 당헌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시기를 5월 둘째 주로 명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 통합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한 신주류 측과 반대편의 친노(친노무현)계간 '노선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4선의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3선의 박영선·노영민·조정식·최재성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3회 부안마실축제 연기안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추모와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간절히 기원하며
제3회 부안마실축제가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안군 부안마실축제 위원회



*부안마실축제는 부안만의 문화와 전통,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마실'로 대표되는 부안의 푸근한 인심과 정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21세기형 감성축제입니다.

